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1월 31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20 국외 항만 주요 동향
 31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친환경선박 ESI(Environmental Ship Index) 인센티브 제도 시행
- 목포항, 접안 혼잡 해소를 위한 항만 기능 재편 추진
- 마산항,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으로 관광·항만 기능 다변화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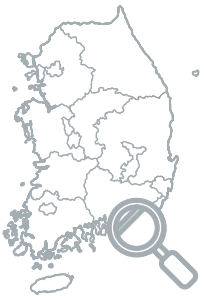
- 닝보·저우산항 북일터미널, 컨테이너 처리량 500만 TEU 상회 기록
- 수에즈 운하 시험적 복귀 조짐 속 우회 항로 유지 지속
- 겨울 기상 악화로 북유럽 주요 항만 및 내륙 물류 운영 차질 지속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25년 1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4% 감소
- 한국 수출 구조, 대중 중심에서 대미 중심으로 전환 조짐
- EU,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제한 추진 착수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부산항만공사(BPA), 친환경선박 ESI 인센티브 제도 시행¹⁾

- BPA는 '26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 평가 프로그램 ESI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
 - BPA가 전 세계 주요 항만이 참여하는 친환경 선박 평가 프로그램 ESI(Environmental Ship Index)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
 - ESI는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성능과 OPS(육상전력공급, Onshore Power Supply) 장착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0~100점으로 점수화하는 국제 표준지표임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 벨기에 앤트워프항, 미국 LA/LB항, 일본 도쿄항 등 전 세계 약 73개 항만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중임
- ESI 점수 구간에 따라 컨테이너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적용함**
 -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을 대상으로 ESI 35.0~49.9점 선박에 항만시설사용료(선박 입출항료) 5%를 감면함
 - ESI 50.0점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를 최대 10%까지 감면하며, '26년 입항 실적을 기준으로 '27년에 일괄 정산 후 감면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동일 항차 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인센티브와의 중복 지급은 불가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2.2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607>(2026.01.22. 검색)

2 BPA, 부산항 신항 서 컨테이너 배후단지 인프라 개선공사 추진²⁾

BPA는 신항 서 컨테이너 배후단지 내 상·하수관로 인프라 개선공사를 시행함

- BPA가 신항 서 컨테이너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물류기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1단계 배후단지 상·하수관로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함
- 신항 서 컨테이너 1단계 배후단지에는 LX판토스 신항에코물류센터와 월드부산 로지스틱스센터가 선정돼 '26년 물류센터 준공 및 운영을 앞두고 있음
-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 중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업무편의시설 부지에는 SK에너지 화물차휴게소 착공이 준비 중임

개선공사에는 상·하수관로 내구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함

- 상수관로에는 기존 관로 대비 내구성이 우수한 주철관을 적용해 시설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하수관로에는 유리섬유 재질의 보수·보강재를 적용해 관로 품질을 향상함
- 하수관 공사에는 도로 굴착 없이 기존 관로 내부에서 보강하는 비굴착 보수공법을 적용해 공사기간 단축과 환경 영향 최소화를 추진함
- 보강작업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입주기업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2.2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614>(2026.01.22. 검색)

3 BPA, '25년 10대 성과 선정³⁾

BPA는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25년 부산항 10대 성과를 선정함

- BPA는 '25년 한 해 동안 부산항이 달성한 주요 성과 중 온라인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10대 성과를 선정함
- '25년 부산항 주요 성과 후보 15개를 대상으로 '25년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일반 국민 투표를 진행해 최종 10대 성과를 도출함
- 해당 투표에는 약 4,200명의 국민이 참여해 부산항 주요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안전·경쟁력·ESG·재무·관광 등 전 분야 성과가 주요 항목으로 포함됨

- 부산항 종사자 중대 재해 '0건'을 4년 연속 달성해 안전 최우선 경영 성과를 기록했으며, DNV(노르웨이선급) 평가 결과 세계 컨테이너항만 경쟁력 4위로 선정돼 글로벌 허브 항만 위상을 입증함
- 그 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 (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창립 이래 22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크루즈·국제여객 113만 명 방문, 친환경 전기 안내선 e-그린호 출항 등 관광·친환경·디지털 분야 성과가 포함됨

2025년 부산항 10대 성과

1 가장 안전한 일터 부산항, 종사자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2 전 세계 항만 경쟁력 4위! 글로벌 물류허브 부산항 위상 입증

세계 최대 선급인 노르웨이 DNV 평가를 통해 세계 4위의 항만 경쟁력을 공인

3 2년 연속 세계 1위! 美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지속가능경영 평가 대상

전 세계 1,000여개 기관 중 평가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의 ESG 경영 능력을 인증

4 살림도 잘하는 부산항, 창립 이래 22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2004년 창립 이후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22년간 흑자를 달성하며 책임경영 실현

5 활짝 열린 부산 관광의 문, 크루즈·국제여객 113만명 방문 예상

초대형 크루즈선 유치 등에 힘입어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인 여객 113만 명 달성

6 함께 성장하는 부산항, 동반성장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전망

기업 상생 노력과 공정 거래 문화를 인정받아 정부 평가 4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2.2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634>(2026.01.22. 검색)

7

더 조용하고, 더 쾌적하게! 친환경 전기 안내선 e-그린호 출항

관공선 최초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무탄소 전기 안내선 취항

8

항만 안전도 세계 최고! 국제항만협회 지속가능어워즈 안전보건부문 1위

국제항만협회(IAPH) 지속가능어워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안전시스템 공인

9

극심한 교통 혼잡 디지털 게이트로 해소!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 장관상 수상

항만 디지털 게이트 도입으로 감만부두 인근 도심의 정체 해소와 항만효율 개선

10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장관상 수상

지속적인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2.2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634>
(2026.01.22.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 BPA, 크루즈터미널 명칭 개편을 통한 이용 혼선 해소⁴⁾

-  BPA는 부산항 크루즈터미널 명칭을 지리적 위치 기준으로 개편해 '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부산항만공사가 크루즈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부산항 크루즈터미널 명칭을 실제 위치 중심으로 정비해 '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기존 부산항 국제여객 2터미널(동구 초량동)을 '부산항 북항 크루즈터미널(Busan North Port Cruise Terminal)'로 변경함
 - 기존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영도구 동삼동)을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Busan Yeong-do Cruise Terminal)'로 변경함
-  터미널 명칭 유사성으로 발생하던 이용 혼선 해소를 목적으로 명칭을 정비함
 - 북항과 영도에 크루즈터미널이 분산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제크루즈터미널', '국제여객 2터미널' 등 유사 명칭 사용으로 위치 인식 혼선이 지속 발생함
 - 크루즈 승객이 시내 관광 후 택시 이용 과정에서 실제 선박이 접안한 터미널이 아닌 다른 터미널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함
 - 부산항만공사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명칭에 지역명(북항·영도)을 전면 반영해 관계 업·단체에 공지함
 - 명칭 개편을 통한 크루즈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전달 효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1.05.),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674>(2026.01.22. 검색)

2) 인천항



1 컨테이너터미널 협력 강화로 물류 흐름 개선⁵⁾

- 인천항만공사는 '25년 컨테이너 물류 흐름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개선을 추진함**

 - 인천항 내 4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항만 운영 전반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공유함
 -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함
- 협의체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인천신항을 중심으로 게이트부터 본선 작업까지 전 단계에서 운영 효율 개선을 추진함**

 - 게이트 단계에서는 기존 RFID 기반 출입체계에서 발생하던 인식 오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I 번호인식 시스템을 도입·고도화함
 - 학습데이터 축적을 통해 차량번호 인식률이 99.8~100% 수준으로 향상되며 화물차 대기시간이 완화됨
- 본선 작업 단계에서도 작업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장비 개선을 통해 작업 여건을 개선함**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랜딩기어형 야드샤시를 도입해 작업 여건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짐
 - 해당 장비 도입으로 본선 작업 시간이 약 10%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남
 - 힌지식 포크 슬롯 방식 갱웨이를 현장에 적용해 작업자 이동 안전성을 높이고 본선 작업 효율을 개선함
- 현장 중심 개선 성과가 물류 처리 시간 단축으로 가시화됨**

 -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함
 - 평균 소요 시간이 18.4분에서 16.8분으로 단축되며 터미널 혼잡 완화 효과가 나타남
- 인천항은 '26년에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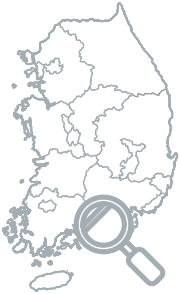
 - 남항 자동 실링 지급기 도입과 전기 하역장비 확대를 통해 운영 효율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임
 - 운영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물류 개선 체계를 유지하며 항만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콜드체인뉴스(2026.01.06.), <https://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8167>(2026.01.23. 검색)

3) 여수·광양항



1 여수광양항만공사, 긴급유지보수 협력체계 구축해 항만 운영 안정성 강화⁶⁾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항만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유지보수 협력체계를 재정비함
- YGPA는 '26년 1월 15일 긴급유지보수 협력기업 26개사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협력기업들은 향후 2년간 건축·철근·콘크리트·전기·정보통신 등 9개 핵심 분야에서 시설물 파손 시 즉각 대응할 예정임
- 간담회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 특성을 고려한 부두 출입 절차와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 연구용역 착수⁷⁾

- 전라남도과 여수시·광양시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여수·광양항을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함
- '26년 1월 16일 광양시청에서 개최된 착수보고회에는 전남도·여수시·광양시·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 17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은 1억 원(도비 50%, 시비 50%)의 예산으로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추진됨
- 여수·광양항은 LNG 터미널과 LNG 벙커링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북극 자원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대규모 제조기업이 집적돼 있어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서 잠재력이 높음
- 이번 용역은 여수·광양항의 역할과 강점을 분석하고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과제를 도출하며, 해양수산부가 상반기 중 착수할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국가계획에 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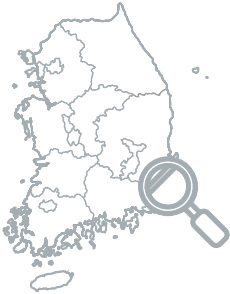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6) 위키트리(2026.01.15.),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10315\(2026.01.22. 검색\)](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10315(2026.01.22. 검색))

7) 스포츠동아(2026.01.20.), [https://sports.donga.com/region/article/all/20260120/133189738/1\(2026.01.22. 검색\)](https://sports.donga.com/region/article/all/20260120/133189738/1(2026.01.22.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26년 예산 확정 및 '2040 비전 선포식' 개최

울산항만공사(UPA, Ulsan Port Authority)는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항만 운영을 위해 '26년 예산을 2,031억 원으로 확정함⁸⁾

- UPA는 항만 인프라 개선, 항만 운영 효율성 제고, 안전 분야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
- '26년 총예산은 전년 대비 약 5.8%(125억 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차입금 상환 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줄어든 항만 건설과 운영 등 핵심 사업비는 전년 대비 35.6%(240억 원) 확대됨
-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남신항 2단계 개발, 북신항 액체부두 기반안정화 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26년 초부터 본격화될 계획임
- 안전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안 울타리 및 감시체계 고도화, VR 안전교육 콘텐츠 구축 등의 사업이 포함됨

한편, UPA는 K-해양강국 견인을 목표로 '204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2040 新전략체계'를 발표함⁹⁾

- UPA는 'K-해양강국을 견인하는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 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6대 경영목표와 4대 핵심가치를 설정함
- 6대 경영목표로는 '총 물동량 2.5억 톤', '친환경 에너지 물동량 16백만 톤', '신사업 매출액 900억 원', '조직·인사역량 지수 S등급', '중대해제 Zero, U-ESG 지수 S등급'을 제시함
- 4대 핵심가치로는 미래선도, 고객우선, 혁신지향, 국민안전을 설정함
-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활성화와 연계해 LNG·메탄올 터미널 기능 강화, 수소·암모니아 터미널 건설, LNG 벙커링 상용화, 차세대 선박연료 공급 시장 활성화, MRO 기술 기반 북극항로 개척 지원 등의 실행과제를 제시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8) 울산항만공사(2025.12.31.),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5794>(2026.01.23. 검색)

9) 울산항만공사(2025.12.30.),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5792>(2026.01.23. 검색)

2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하역사업 실태조사 실시¹⁰⁾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해수청)은 울산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체를 대상으로 '26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수행 실적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이번 조사는 총 50개사를 대상으로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기준 유지 여부, 전년도 사업수행 실적, 주요 취급 품목 등을 조사함
 - 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적 기준 미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임
 - 울산해수청은 이번 실태조사가 항만하역사업 질서 확립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2026.01.06.),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129204>(2026.01.23. 검색)

5) 평택·당진항



1 평택해수청,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착공으로 물류비용 절감 기대¹¹⁾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12월 29일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힘

 - 그간 평택·당진항의 배후수송망은 서해안고속도로(서해대교구간)와 국도 38호선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당진 측에서 평택·당진항으로 직접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항만 및 내륙 물류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음
 - 평택해수청은 총사업비 1,84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당진시에서 평택시 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3.12km, 폭 15.5m, 왕복 2차선의 진입도로를 건설할 계획임
-  도로 건설 시 운행거리가 최대 22km 단축되고 운행시간은 최대 80% 단축될 전망이다

 - 도로 건설 시 송악IC 기준 평택항 서부두까지의 운행거리가 최대 22km 단축됨
 - 현행 최대거리는 송악IC에서 국도38호선을 거쳐 서부두까지 29km이나, 도로 건설 시 최단거리는 송악IC에서 신평·내항 간 도로를 거쳐 서부두까지 7km로 줄어듦
-  평택해수청은 교통체증 완화와 항만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운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함

 - 정상구 평택해수청 청장은 이번 진입도로 건설을 통해 교통체증 완화와 항만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운영 효율성 증대, 지역 주민 이동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6.01.06.), [https://pyeongtaek.mof.go.kr/ko/board.do?menuidx=2127&bbsidx=129188\(2026.01.24. 검색\)](https://pyeongtaek.mof.go.kr/ko/board.do?menuidx=2127&bbsidx=129188(2026.01.24. 검색))

6) 포항항

① 영일만항 에너지 복합기지 조성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¹²⁾

-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25년 12월 30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에너지 복합기지 조성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응해 영일만항을 청정에너지 생산·저장·공급 기능을 갖춘 복합 에너지 항만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함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포항시는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영일만항을 에너지 수입·수출, 생산, 저장, 공급 기능을 갖춘 국가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구상을 마련함

 -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 지원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거점항만 구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처리·공급 기능을 포함한 자원개발 허브 항만으로의 확대를 검토함
- 포항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영일만항 확장 및 기능 고도화와 연계한 세부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고, 항만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절차와 정책 대응을 추진할 방침임

 - 이를 통해 동해안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 항만으로서 영일만항의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항만 정책과 연계된 실질적 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2) 아시아경제(2025.12.30.), <https://cm.asiae.co.kr/en/article/2025123012422907069>(2026.01.22.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해수청, 동해항 남부두 13번 선석 개선사업 본격 추진¹³⁾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동해항 남부두의 노후 항만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 선석 개선사업을 1월 19일 본격 착수함
 - 본 시설은 '25년 7월 안전진단 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업으로 추진됨
 - '26년 1월부터 '29년 5월까지 40개월간 443억 원을 투입하여 잔교식 구조물 320m를 개축하게 됨
- ◆ 항만이용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와 항만운영 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임
 - 항만이용자인 쌍용C&E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와 항만운영 간섭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공사 계획을 수립함
 - 전체 사업구간 320m를 2개 구간(160m)으로 분할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항만운영 지장을 최소화할 예정임
- ◆ 노후 시설 개선으로 항만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항만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항만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6.01.20.),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29448>(2026.01.24. 검색)

2 '25년 강원도 연안 및 국제여객선 이용객 8.9% 증가¹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강원도 연안여객선과 국제여객선 이용객이 '25년 203,861명으로 전년도 187,257명에 비해 8.9% 증가했다고 밝힘

- 연안여객선(목호-울릉/강릉-울릉 항로) 이용객 수는 '24년 157,826명에서 '25년 180,067명으로 14.1% 증가함
- 울릉도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강릉항로는 '24년 108,114명에서 '25년 97,941명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으나, 울릉-독도항로를 증편 운항한 목호항로는 '24년 49,712명에서 '25년 82,126명으로 전년 대비 65.2% 증가함

국제여객선 이용객은 감소했으나 화물 수송은 32.1% 증가함

- 국제여객선(한-러(블라디보스토크)/한-일(사카이미나토)) 이용객 수는 '24년 29,431명에서 '25년 23,794명으로 19.2% 감소함
- 주요 고객인 러시아인들의 중국경유 항공기 이용이 늘면서 국제여객선 이용객이 '24년 21,460명에서 '25년 14,732명으로 31.4% 감소함
- 국제여객선을 통한 화물 수송의 경우 '24년 19,176톤에서 '25년 25,326톤으로 32.1% 증가함
- 러-우 전쟁 영향으로 화물 수출입이 침체 상태이나, 속초-블라디보스토크 항로 지앤엘 그레이스호 신규 취항에 따른 중고차 수출이 늘어 전체 화물량은 전년 대비 32.1% 증가함

동해청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사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임

- 김왕식 동해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국내외 정세와 강원지역 여객사업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사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6.01.15.),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29378>(2026.01.24. 검색)

8) 목포항



① 목포시, 접안 혼잡 해소를 위한 항만 기능 재편 추진¹⁵⁾

▶ 목포시는 접안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항만 기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임

- 목포 북항과 내항은 어선 접안 수요 대비 공간이 부족해 이중·삼중 접안이 상시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 충돌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됨
- 항만 기능 재편은 항별 기능 분담을 통해 접안 수요를 분산하는 구조로 추진하며, 기능 재배치를 통해 북항과 내항의 혼잡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삽진항 건설과 내항 기능 전환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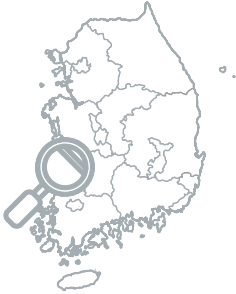
- 접안 수요 분산 거점으로 삽진항 국가어항을 조성해 방파제·호안·부잔교를 우선 구축하여 어선과 레저선이 함께 이용하는 항만으로 기능을 설정함
- 내항은 옛 수협 위판장 부지를 중심으로 항만 재생을 추진해 기능 전환을 검토하여 기본구상과 설계를 거쳐 '28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5) 목포MBC(2025.12.30.), [https://www.mpmbc.co.kr/NewsArticle/1498438\(2026.01.22. 검색\)](https://www.mpmbc.co.kr/NewsArticle/1498438(2026.01.22. 검색))

9) 대산항



1 서산시, '2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¹⁶⁾

서산시는 대산항 항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년 철도·해운·크루즈 분야 사업에서의 추진 계획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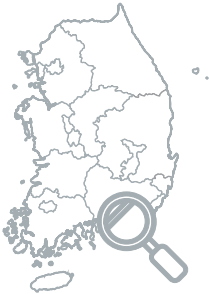
- 대산항 철도 물류 기반 구축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내 대산항~당진 석문산단 17.3km 단선 구간을 대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반영을 목표로 기반을 조성할 예정임
-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해 서산~용안, 서산~위해 항로 유치를 추진하고 관심 사업자 발굴과 신조선 투입 여건을 완화할 계획임
- 충청권 최초 모항 국제크루즈선 운항 성과와 대한민국 7대 기항지 선정을 계기로 국제크루즈선 지속 유치를 추진을 위해 '26년 6월 대산~일본 오키나와~대만 기륭~부산 항로 운항을 준비 중임
- 또한, 중국 수출화물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컨테이너 화물 10만 TEU 이상 유치와 동남아 신규 항로 개설을 목표로 화주·선사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6) 서산시청(2026.12.29.), [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8&bbsNo=106&nttNo=330403&searchCtg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2026.01.23. 검색\)](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8&bbsNo=106&nttNo=330403&searchCtg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2026.01.23. 검색))

10) 군산항



1 동부건설, 제2준설투기장 2공구 공사 수주¹⁷⁾

-  동부건설은 해양수산부 소속 발주기관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제2준설투기장 축조공사 2공구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됨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인근 해상에 투기장 외곽호안 2.12km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항만 인프라 사업임
 - 총공사비는 2,627억 원, 공사기간은 착공일 기준 48개월로 책정되며 동부건설은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함
-  이번 투기장 조성은 항로 및 유지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됨

 - 서해권 주요 항만은 금강 하구 인접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항로 및 선석 구간에 토사 퇴적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유함
 - 준설이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운영 여건에서 준설토 처리 인프라 확보는 항로 안전성과 항만 운영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됨
-  사업 완료 시 항만 운영 여건 개선과 물류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됨

 - 준설토 처리 여건 개선을 통해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 항만 운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서해권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동부건설은 항만 분야 수주 확대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장 중임

 - '25년 들어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기반시설, 잡화부두 개발, 신항 및 준설투기장 조성 등 다수의 대형 항만 프로젝트를 연이어 확보함
 - 연간 누적 신규 수주액이 4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항만·해안 분야에서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이 재확인됨

17) 해사신문(2025.12.31.),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648>(2026.01.23. 검색)

11) 마산항



1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으로 관광·항만 기능 다변화¹⁸⁾

- 경상남도는 '25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신규 크루즈 기항지 공모에서 마산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함

 - 이번 선정은 항만 여건, 교통 접근성, 관광자원, 국제 크루즈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마산항과 새만금신항 2곳이 신규 기항지로 포함됨
- 경남도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 관광지 사전 답사와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고, 부산·포항·속초 등 기존 크루즈 기항지를 방문해 유치 전략과 출입국 절차 운영 경험을 공유함

 - 이러한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와 협업을 강화해 MS Island Sky호(4천 톤급)의 '26년 5·6월 및 '27년 6월 마산항 3부두 기항을 확정함
- 아울러 경남도는 국내외 포트세일즈와 국제 크루즈 포럼, 해외 항만 마케팅을 통해 기항 의향서 총 36건을 확보했으며, 향후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국비 지원 확보도 추진할 계획임

 - 이를 통해 마산항을 물류 중심 항만에서 관광·여객 기능을 겸비한 국제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크루즈 터미널 신설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8) 뉴시스(2025.12.2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29_0003457461(2026.01.22.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1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다렌컨테이너터미널(DCT) 지분 인수¹⁹⁾

-  일본 ONE이 중국 동북지역 최대 외항 컨테이너 무역 거점에 위치한 다렌항 DCT의 소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함
 - 지분 규모와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ONE은 중국 동북지역 핵심 항만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설명함
 - DCT의 대주주는 랴오닝항만그룹으로, 해당 그룹은 차이나머천츠그룹의 지배를 받는 구조임
 - PSA는 랴오닝 포트 싱가포르 다렌 포트 인베스트먼트 합작법인과 PSA 차이나를 통해 DCT 지분을 보유함
 - DCT의 연간 설계 처리능력은 660만 TEU이며, 컨테이너 선석 14선석, 안벽 4,390m, 최대 수심 17.8m, 갠트리크레인 33기를 갖추고 있음
 - PS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DCT의 '23년 컨테이너 처리량은 370만 TEU를 상회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9) Transport Corridor(2026.01.05.),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17624\(2026.01.22. 검색\)](https://www.transportcorridors.com/17624(2026.01.22. 검색))

2 **닝보·저우산항 북일터미널, 컨테이너 처리량 500만 TEU 상회 기록²⁰⁾**

- ◆ **닝보·저우산항 북일터미널은 장기간 통합운영과 설비 확충을 통해 처리 역량을 지속 강화해왔으며,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이 처음으로 500만 TEU를 넘어섬**
 - 북일터미널은 '25년 12월 22일 기준 컨테이너 처리량 500만 TEU를 최초로 달성했으며, 이는 '25년 12월 3일 해운·철도 복합운송 물량이 100만 TEU를 돌파한 데 이은 성과임
 - 북일터미널은 닝보·저우산항 컨테이너 업무가 시작된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 30년간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해 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옴
 - 현재 안벽 2,215.4m, 컨테이너 선석 7선석, 야드 면적 105만 m², 브리지크레인 20대 이상, 갠트리크레인 100대 이상의 하역 설비를 보유함
 - 국내 무역 컨테이너 업무 확대와 디지털 운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최근 11개월 기준 국내 지선 컨테이너 운송량이 200만 TEU를 초과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대외무역 규모 사상 최대 기록²¹⁾**

- ◆ **중국의 '25년 외국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25년 중국의 외국무역 총액은 45조 4,7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함
 - 수출은 26조 9,9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며, 수입은 18조 4,800억 위안으로 0.5%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중국은 수입 규모 기준으로 17년 연속 세계 2위 수입 시장 지위를 유지함
 -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21~'25년) 동안 누적 수출입 규모는 200조 위안을 초과해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대비 40% 증가함
 - 중국 해관총서는 외국무역 성장 요인으로 무역 안정화 정책, 대규모 내수시장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해외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 체계를 제시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0) 코리아쉬핑가제트(2026.01.14.),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46344(2026.01.22. 검색)

21) Qiushi(2026.01.15.), https://en.qstheory.cn/2026-01/15/c_1155054.htm?utm_source=chatgpt.com(2026.01.22.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항, 컨테이너·벙커링 물동량 동반 성장²²⁾

- 싱가포르항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25년 컨테이너 및 벙커링 물동량이 모두 증가하며 세계 주요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함

 - MPA(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통계에 따르면 '25년 컨테이너 처리량은 4,466만 TEU로 전년 대비 8.6% 증가함
 - 세계 1위 상하이에 이어 세계 2위 컨테이너 항만 지위를 유지함
- 해운동맹 재편이라는 불리한 외부 여건 속에서도 물동량 증가세를 기록함

 - '25년 머스크와 하판로이드가 참여하는 새로운 해운동맹 체제가 출범하며 동남아 허브 재편 가능성이 제기됨
 - 머스크가 지분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인접 항만으로 물량 이전 우려가 있었으나, 싱가포르항의 물동량 증가세는 유지됨
- 벙커링 부문에서도 세계 최대 연료 공급 항만 지위를 지속했으며 친환경 연료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25년 벙커링 판매량은 5,677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대체연료 판매량은 195만 톤으로 '24년 135만 톤 대비 크게 확대됨
 - '26년 1월 LNG 벙커링 추가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입찰을 개시하였으며 바이오메탄과 e-메탄을 포함한 LNG 연료 공급을 확대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2) Seatrade Maritime(2026.01.14.),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singapore-port-sees-record-container-bunker-volumes-in-2025>(2026.01.23. 검색)

2 일본, 동아시아 항로 개편으로 아시아 연계성 강화²³⁾

ONE(Ocean Network Express)은 '26년 4월부터 동아시아-일본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편해 일본, 동북아, 동남아, 인도 간 연결성을 강화함

- 이번 개편은 서비스 통합, 기항 순서 조정, 추가 기항지 반영 등 네트워크 최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됨
- 해운동맹 재편과 역내 물류 흐름 변화에 대응해 주요 허브 간 연결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일본-동남아-인도를 연결하는 주요 항로 구조가 조정됨

- 일본-태국-베트남-인도 서비스는 기존 항로를 단일 루프로 통합함
- 일본-인도네시아 서비스는 일부 기항지를 추가해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함
- 일본-말레이시아 서비스는 기항지를 조정해 항로 효율성을 제고함

단거리 및 역내 연계 서비스도 함께 조정됨

- 일본-홍콩-동남아를 연결하는 기존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일부 순환 구조를 조정함
- 일본-베트남, 일본-필리핀, 일본-한국, 일본 연안 셔틀 서비스 등 다수 노선에서 부분적인 기항 조정이 이뤄짐

ONE은 이번 개편을 통해 서비스 신뢰성과 항만 커버리지를 동시에 개선할 방침임

- 주요 아시아 및 인도 아대륙 교역 항로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송 옵션을 제공하며 항로 안정성과 정시성을 강화해 화주 선택 폭을 확대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3) Container News(2026.01.19.), [https://container-news.com/one-updates-east-asia-japan-service-network/\(2026.01.23. 검색\)](https://container-news.com/one-updates-east-asia-japan-service-network/(2026.01.23. 검색))

3 미 관세 위협에 인도의 對이란 연계 물류 전략 불확실성 확대²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 부과 위협이 전략적 항만 연계와 인도의 對이란 무역 계획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인도가 전체 수출에서 이란 비중이 약 0.3%에 그쳐 거시적 경쟁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특히 바스마티 쌀 수출이 둔화되는 등 특정 품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평가함
- 인도 수출업체들은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대금 미지급 우려를 이유로 신규 계약을 보류해 선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인도 입장에서 더 큰 변수는 차바하르(Chabahar) 항만 개발 야망을 약화시키며 인도의 물류·교역 다변화 전략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임
- 차바하르 항만은 파키스탄을 우회해 아프가니스탄·중앙아시아·유럽으로 통하는 교역로 역할을 목표로 해 인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
- 인도는 지난해 10월 미국으로부터 차바하르 항만 개발·운영에 대해 6개월간 제재 유예를 받아왔으며, 이 유예는 '26년 4월까지 연장돼 인도 국영기업이 10년 계약에 따라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했음
- 유예가 만료돼 미국이 추가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인도 기업들은 미국 관세 적용을 받아 이 항만 전략의 장기적 목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인도의 '24년 대이란 수출이 16억 달러인 반면 대미 수출은 상품·서비스 합계 1,290억 달러에 달해 격차가 크며, 이에 따라 대미 리스크 관리가 정책 판단의 핵심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미국과의 무역협정 논의 및 관세 압박 속에서 이란 연계 교역을 유지할지 조정할지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4) SCMP(2026.01.15.), <https://www.scmp.com/week-asia/economics/article/3339997/indias-aim-diversify-trade-iran-faces-us-tariff-threat>(2026.01.23. 검색)

4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해상 물류 리스크 확대²⁵⁾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십 척의 상업용 선박이 이란 주요 항만 경계 밖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함

- 이는 군사 충돌 가능성과 항만 인근 공습 위험을 고려한 예방적 조치로 해석됨
- 해양 정보업체인 폴스타 글로벌(Pole Star Global) 자료에 따르면 1월 6~12일 사이 이란 EEZ로 이동한 유조선 수는 1척에서 36척으로 급증함
-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 자료에 따르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은 최소 50척 이상이 이란 주요 항만인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Bandar Imam Khomein)항과 반다르 압바스(Bandar Abbas)항 인근 EEZ 해역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됨
- 한편, 이스라엘의 '25년 6월 공습과 항만 인근 대규모 폭발 사고 이후 해상 안전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미국 해군 주도의 연합해양군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교란이 상당 수준 증가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중동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운항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5) Reuters(2026.01.15.),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dozens-ships-anchor-outside-irans-ports-us-tensions-rise-2026-01-14/\(2026.01.23. 검색\)](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dozens-ships-anchor-outside-irans-ports-us-tensions-rise-2026-01-14/(2026.01.23. 검색))

3) 미주



① 북미항로 중국발 수요 급감, 선사들 운임회복 어려움 겪어²⁶⁾

북미항로는 2월 중순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밀어내기 수요가 많지 않아 선사들이 화물 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 선사들은 중국발 물량이 줄어든 배경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면서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발 물동량이 폭증한 점을 꼽음
- 지난해 연말 물량이 빠르게 소진된 데다 공급이 늘면서 화물 적재율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선사 관계자는 1월 1일과 1월 15일 두 차례 운임 인상을 진행했지만 서안 운임을 3,000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밝힘

서안 운임은 5주 만에 하락 전환했으나 동안 운임은 5주 연속 상승함

- 1월 16일 상하이발 북미 서안행 운임은 FEU당 2,194달러를 기록해 전주 대비 1% 하락했으나, 1월 평균 운임은 지난해 12월 대비 18% 상승함
- 동안행 운임은 FEU당 3,165달러를 기록해 전주 대비 1%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으며, 1월 평균 운임은 전월 대비 16% 상승함

물동량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중국발은 감소, 베트남·인도발은 급증함

- 지난해 12월 아시아 10개국발 북미행 물동량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159만 4,000TEU를 기록함
- 중국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059만 4,000TEU, 한국은 3% 감소한 233만TEU를 기록한 반면, 베트남은 33% 폭증한 271만 7,000TEU, 인도는 8% 증가한 91만 5,000TEU를 각각 기록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6) 코리아워킹가제트(2026.01.26.),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46411(2025.01.26. 검색)

4) 유럽



① 겨울 기상 악화로 북유럽 주요 항만 및 내륙 물류 운영 차질 지속²⁷⁾

-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북유럽 지역에 한파와 폭설, 결빙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요 항만의 운영 여건이 악화됨
 - 낮은 기온과 결빙으로 항만 내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터미널에서는 작업 속도가 저하됨
 - 항만 내부뿐 아니라 항만 접근 도로와 철도 노선에서도 결빙과 적설로 운송 제한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의 반출입 일정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항만과 내륙 운송 구간을 연계하는 물류 흐름 전반에서 지연이 나타남
- 북유럽 주요 항만을 경유하는 화물은 항만 하역 이후 내륙 운송 단계에서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도로 및 철도 운송이 제한되면서 항만 장치장에 체류하는 화물이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짐
 - 겨울철 기상 영향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항만과 내륙 물류망 전반에서 운영 일정의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7) myKN News(2026.01.13.), <https://mykn.kuehne-nagel.com/news/article/severe-winter-weather-continues-to-disrupt>(2026.01.22. 검색)

2 머스크, MECL 서비스 수에즈 운하 항로 운항 재개²⁸⁾

-  머스크는 MECL(Middle East-India-US East Coast) 서비스에 대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로 복귀함
 - MECL 서비스는 중동과 인도 지역을 미국 동안과 연결하는 머스크 단독 운영 노선임
-  MECL 서비스의 수에즈 운하 경유 운항은 홍해 및 수에즈 회랑 인근 지역의 여건 안정화에 따라 시행됨
 -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희망봉 우회 항로 대신, 당초 설계된 서비스 패턴으로 운항이 전환됨
 - 서향 항로의 경우 Cornelia Maersk호가 '26년 1월 26일 살랄라(Salalah)항을 출항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함
 - 이후 Maersk Chicago, Maersk Pittsburgh, Clementine Maersk 등 후속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동일 항로를 이용함
 - 동향 항로에서는 Maersk Detroit호가 '26년 2월 3일 탕헤르 메드(Tanger Med)항을 출항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함
 - 이후 Maersk Sebarok, Maersk Atlanta, Maersk Denver 등 선박이 같은 항로로 운항함
-  MECL 서비스의 수에즈 운하 경유 운항 전환에 따라 항해 소요 기간이 기존 대비 약 1주 단축됨
 - 서향 항로는 Maersk Kensington호 607W 항차부터, 동향 항로는 Maersk Detroit호 602E 항차부터 단축된 소요 기간이 적용됨
-  머스크는 홍해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여건 악화 시 일부 항차 또는 서비스 구조를 다시 희망봉 우회 항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유지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8) MAERSK(2026.01.15.), <https://www.maersk.com/news/articles/2026/01/15/mecl-service-returning-to-trans-suez-routing>(2026.01.22.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프리맨틀 교량 폐쇄 앞두고 호주 화물 업계, 항만 물류 대책 마련 나서²⁹⁾

- '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프리맨틀 교통 교량(Fremantle Traffic Bridge) 폐쇄를 앞두고 호주 화물 업계가 항만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섰다

 - Container Transport Alliance Australia(CTAA), Freight & Trade Alliance(FTA), Western Roads Federation(WRF) 등 업계 단체들이 '26년 1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프리맨틀항 화물 운송 유지를 위한 해결책 논의에 착수함
- 서호주 정부는 피크 시간대 트럭 운행 제한을 검토 중이나 업계 자체 해결책 마련을 우선 요구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임

 - 서호주는 철도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25년 7~10월 프리맨틀항 화물의 28%를 철도로 운송하였으며, 이는 호주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임
 - 서호주 교통·주요 인프라부(DTMI, Department of Transport & Major Infrastructure)는 화물 운송 제한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철도 활용 확대나 피크 시간대 혼잡 회피 노력이 부족할 경우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업계는 야간 배송 확대, 철도 활용 증대, 고생산성 화물차량(HPFV) 활용 등 피크 시간대 트럭 운행 감축 방안을 논의함

 - HPFV(Higher Productivity Freight Vehicles) 활용 시 트럭 운행 횟수를 25~50% 감축할 수 있으나, 정부는 철도 화물 점유율 보호를 이유로 불허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업계는 HPFV 활용이 혼잡 완화, 배출가스 감축, 도로 안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 재검토를 요구함
 - 업계는 향후 운영 및 비용 영향을 지속 평가하며 서호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할 계획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9) Container Transport Alliance Australia(2026.01.09.), <https://www.ctaction.com.au/freight-industry-unites-ahead-of-fremantle-traffic-bridge-closure/>(2026.01.21. 검색)

6) 아프리카



1 리비아 미수라타항, 27억 달러 규모 터미널 확장 프로젝트 착수³⁰⁾

-  리비아 미수라타 자유무역지대(MFZ, Misurata Free Zone)가 '26년 1월 19일 MSC, 카타르와 27억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협약을 체결함

 - 이 협약은 리비아 에너지 부문 외에서 체결된 첫 대규모 PPP 인프라 프로젝트로, 리비아의 경제 회복과 글로벌 투자자 유치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됨
-  미수라타항은 리비아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60~65%를 처리하는 리비아 최대 컨테이너 관문임

 - 미수라타 자유무역지대는 '00년 설립된 리비아 최초 자유무역지대로, 현재 2,576헥타르 규모이며 향후 20,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임
 -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미수라타항을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고용량 시설로 전환해 리비아의 지역 및 글로벌 무역 역할을 강화할 예정임
-  파트너십은 대형 선박 수용을 위한 컨테이너 처리 용량 확대, 미수라타 자유무역지대의 산업 생태계 통합, 세계적 수준의 터미널 장비 및 디지털 시스템 배치를 포함함

 - 향후 심해항(deep-sea port)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리비아의 지중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목표이며, 이는 단계별로 전개될 광범위한 투자 프로그램의 일부를 형성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제조업, 부가가치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0) PR Newswire(2026.01.20.),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misurata-free-zone-authority-signs-2-7-billion-landmark-ppp-to-transform-misurata-free-zone-port-into-a-leading-mediterranean-gateway-and-transshipment-hub-302664742.html>(2026.01.21.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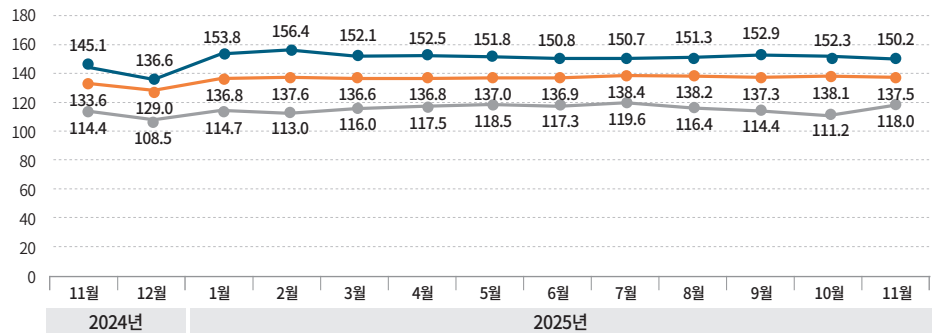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 Total
— China Index
— North Range Index

① '25년 1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4% 감소³¹⁾

● '25년 1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137.5p를 기록함

- 소폭의 증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은 중국 항만은 감소하고 유럽 항만은 증가하는 등 반대의 모습을 보임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50.2p로 전월 대비 1.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함
- 유럽 항만의 처리량은 118.0p로 전월 대비 6.1%,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3.6	129.0	136.8	137.6	136.6	136.8	137.0	136.9	138.4	138.2	137.3	138.1	137.5	-0.4	2.9
China Index	145.1	136.6	153.8	156.4	152.1	152.5	151.8	150.8	150.7	151.3	152.9	152.3	150.2	-1.4	3.5
North Range Index	114.4	108.5	114.7	113.0	116.0	117.5	118.5	117.3	119.6	116.4	114.4	111.2	118.0	6.1	3.1

주: 2015=100, Total 및 North Range Index는 계절 및 근무일 조정

자료: ISL(2025.12.16.),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1125>(2026.01.22.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1) ISL(2025.12.16.),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1125>(2026.01.22. 검색)

2 수에즈 운하 시험적 복귀 조짐 속 우회 항로 유지 지속³²⁾

수에즈 운하를 통한 컨테이너선 통과가 제한적으로 증가함

- 홍해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수에즈 운하 통과가 일부 선사를 중심으로 시험적으로 재개됨
- 드류리(Drewry)가 공개한 ‘홍해 우회 추적기’에 따르면 1월 11일 종료 주간 기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컨테이너선은 26척으로 최근 5주 중 최대치를 기록함
- 이는 직전 주 10척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나, 평시 주간 통과 규모(북상 약 55척, 남하 약 25척)에는 크게 못 미침
- 드류리는 현 상황을 홍해 위기 이전의 정상 운항 구조로 복귀한 단계로 보기는 이르다고 밝힘

주요 선사들은 시험 운항을 병행하면서 희망봉 우회 항로를 유지함

- CMA CGM과 MSC는 1월 둘째 주에 8,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5척을 수에즈 운하로 시험 투입함
- 머스크는 지난해 말 미주-중동 노선에 6,478TEU급 선박 1척을 통과시키는 데 그침
- 같은 기간 희망봉 우회 항차는 203회로 집계돼 직전 주 82회 대비 크게 증가함
- 드류리는 향후 수에즈 복귀가 보험 시장 반응, 선사별 운항 성과, 운임 변동성 등을 고려한 점진적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2) 뉴스로드(2026.01.14.),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53>(2026.01.22. 검색)

3 세계은행, '26년 세계경제 성장률 2.6% 전망³³⁾

 세계은행은 '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 추정치 2.7%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제시함

- 세계은행은 지난해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둔 교역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경제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설명함
- 올해에는 교역량과 국내 수요 감소로 이러한 성장 촉진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함
- 세계 금융 여건 개선과 경제 규모가 큰 일부 국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 둔화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함

 지역별 성장률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동시에 전망됨

- 미국 성장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률 상향 조정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함
- 유로 지역 성장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영향으로 지난해 1.4%에서 올해 0.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은 중국 성장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4.8%에서 올해 4.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성장률은 소비자 신뢰 위축, 부동산시장 침체, 고용 및 제조업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4.9%에서 올해 4.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은 무역 갈등 심화, 무역장벽 강화, 금융시장 여건 악화 등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3) SBS NEWS(2026.01.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03115&plink=SHARE&cooper=COPY\(2026.01.22. 검색\)](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03115&plink=SHARE&cooper=COPY(2026.01.22. 검색))

4 한국 수출 구조, 대중 중심에서 대미 중심으로 전환 조짐³⁴⁾

-  한국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정체된 반면, 대미국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며 양국 간 격차가 20여 년 만에 크게 축소됨
 - 대중·대미 수출 비중 격차는 '21년 10.4%포인트에서 '25년 1.1%포인트 수준까지 감소함
 - '25년 기준 대중 수출액은 1,308억 달러(18.4%), 대미 수출액은 1,229억 달러(17.3%)를 기록함
 - '24년에는 양국 간 수출 비중 격차가 0.8%포인트까지 축소된 바 있음
-  대중 수출 둔화와 대미 고부가 품목 수출 확대가 동시에 진행됨
 - 대중 수출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공급망 내재화, 경기 둔화 영향으로 감소와 정체가 반복되었고,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 다변화로 아세안 수출 비중이 17.3%까지 확대돼 대미 수출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
 - 대미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함
 - '25년 대미 수출은 보호무역과 관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 증가로 하락 폭이 제한됨
 - '25년 전체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22.2%), 자동차 수출은 720억 달러(+1.7%)로 각각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함
-  정부는 대미 수출 기반 유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함
 - 정부는 제조 AI 전환(M.AX) 전략을 통해 수출 산업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민관 합동 원팀 체계를 강화할 방침임
 - 정부는 총 275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 공급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마케팅·물류·인증 관련 수출 애로 해소를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4) 매일일보(2026.01.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15>(2026.01.22. 검색)

2) 양곡



① '25년 12월 주요 곡물 가격 전월 대비 혼조세

- ☛ '25년 12월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기준 주요 곡물 가격은 품목별 수급 여건에 따라 전월 대비 상이한 흐름을 나타냄

 - 밀은 하락한 반면, 대두와 옥수수는 상승하며 품목 간 가격 흐름이 엇갈림
- ☛ 밀 가격은 192달러/톤으로 전월(197달러/톤) 대비 2.4%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199달러/톤) 대비 3.3% 하락한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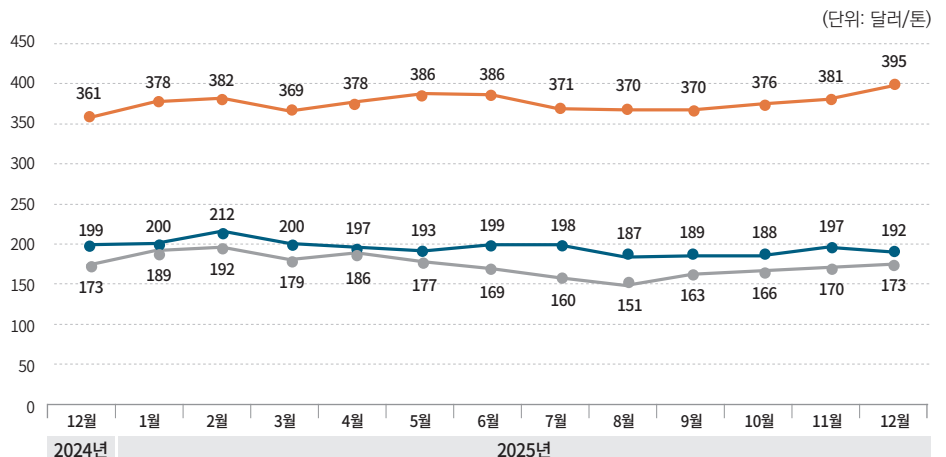
 - 전 세계 공급량 증가와 주요 생산국 생산·수출 전망 상향으로 공급 초과가 심화되어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 대두 가격은 395달러/톤으로 전월(381달러/톤) 대비 3.6%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361달러/톤) 대비 9.3%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 흐름을 보임

 - '26년 바이오연료 혼합 할당량 확정 기대와 미국 유지종자 가공업체 협회의 높은 착유 실적에 가격 상승을 지지함
- ☛ 옥수수 가격은 173달러/톤으로 전월(170달러/톤) 대비 2.1%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173달러/톤) 대비로는 0.2% 상승하며 보합 수준을 유지함

 - 사료·에탄올 수요와 물류비 변동 영향으로 단기 반등 흐름이 이어짐
- ☛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대두와 옥수수가 상승한 반면 밀은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는 밀만 하락세를 유지함

세계곡물 가격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03 품목 및 산업 동향

(단위: 달러/톤)

구분	24년	2025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199	200	212	200	197	193	199	198	187	189	188	197	192	-2.4	-3.3
대두	361	378	382	369	378	386	386	371	370	370	376	381	395	3.6	9.3
옥수수	173	189	192	179	186	177	169	160	151	163	166	170	173	2.1	0.2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미국 옥수수 작황 개선으로 국제 가격 안정 기대³⁵⁾

-  미국의 옥수수 생산과 품질이 크게 개선되며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됨
 - 미국곡물바이오제품협회 한국사무소는 '26년 미국 옥수수 수확 품질 및 곡물시장 전망 세미나를 통해 미국산 옥수수의 기록적인 작황과 시장 여건을 공유함
-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과 단수는 장기 평균을 상회하며 공급 안정성을 강화함
 - '25/'26년 미국 옥수수 생산량과 단위당 수확량은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생산량 확대와 양호한 기후 여건이 단기 공급 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품질 지표 전반에서도 개선 흐름이 확인됨
 - 전체 생산량의 89.2%가 1등급, 96.2%가 2등급 이내로 분류됨
 - BCFM(Broken Corn & Foreign Materials) 비율은 0.3%로 최근 1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품질 안정성이 강화됨
 - 알곡 밀도는 5년 평균을 상회해 가공·사료용 활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중국의 옥수수 수입 수요 둔화도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은 자국 생산 확대와 양돈 두수 조절, 경제 둔화 영향으로 사료용 곡물 수입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임
 - 수입선 다변화와 미·중 통상 환경 변화도 미국산 옥수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글로벌 공급 확대와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국제 옥수수 가격은 당분간 안정세가 예상됨
 - 미국의 기록적인 작황과 중국 수입 감소가 동시에 작용하며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 이는 국내 사료·곡물 수입 시장에도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5) 한돈뉴스(2026.01.21.), [https://www.pignpork.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7385\(2026.01.23. 검색\)](https://www.pignpork.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7385(2026.01.23.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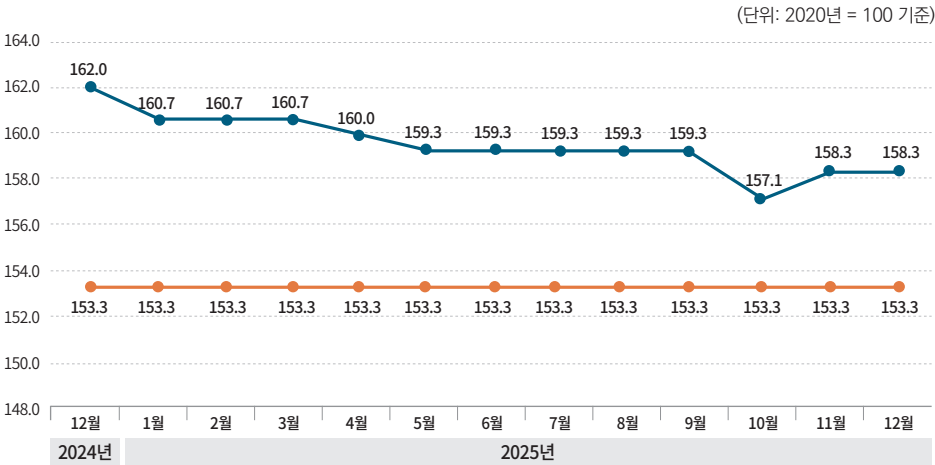


1 '25년 12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25년 12월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월과 동일한 158.3p를 기록했으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도 전월과 동일한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지난 12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11월 소폭 반등한 이후 12월에는 보합세를 유지함
 -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지난 1년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4년	2025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0.7	160.7	160.7	160.0	159.3	159.3	159.3	159.3	159.3	157.1	158.3	158.3	0.0	-2.3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1.24. 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1.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 건설 침체 직격탄 맞은 시멘트업계, 올해 환율·안전운임제에 더 혹독³⁶⁾

올해 국내 주요 시멘트사들의 내수 출하량은 3,600만 톤에 그칠 전망

-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출하량은 1997년 사상 최대인 6,175만 톤을 기록한 뒤 IMF 외환위기로 4,461만 톤(1998년)으로 급락했으며, 2017년 5,671만 톤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8년 만인 지난해 2,000만 톤 넘게 급감함
- 올해 역시 건설업계의 착공 부진과 PF리스크,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만성적인 자금 문제 등의 영향으로 시멘트 수요 회복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활과 환율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22년 종료됐다가 3년 만에 부활하여 오는 '28년까지 3년 한시로 시멘트 품목과 수출입 컨테이너에 한정해 시행됨
- 시멘트 품목에서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2년 대비 17.5%,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인상됨
- 시멘트 제조 연료인 유연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면서 수입 단가가 지난해 대비 올라 원가 비용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설비 투자도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함

- 정부의 대기 환경 규제 강화 기조에 맞춰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SCR 설비 투자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임
-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환율과 안전운임제, 설비 투자 등으로 회복의 신호가 보이지 않으며, 올해도 생존을 위한 버티기 전략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36) 이투데이(2026.01.19.),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6573>(2026.01.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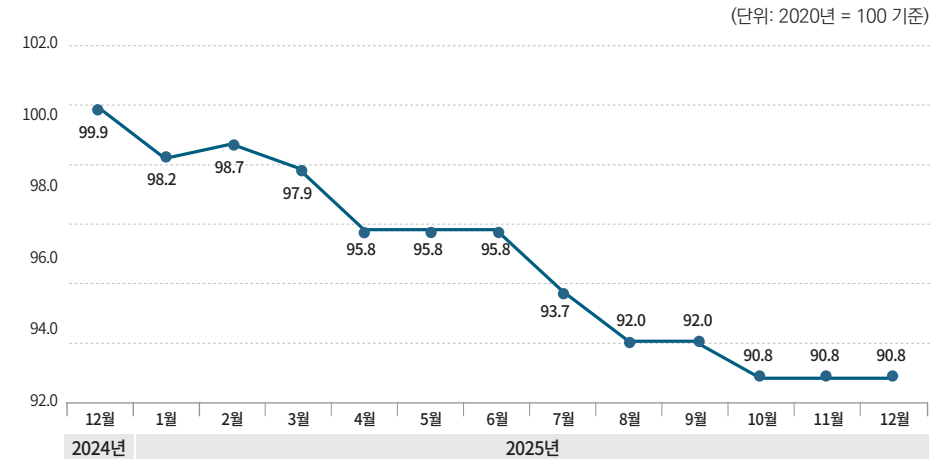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90.8% 기록

'25년 12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0.8%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함



구분	24년	2025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99.9	98.2	98.7	97.9	95.8	95.8	95.8	93.7	92.0	92.0	90.8	90.8	90.8	0.0	-9.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1.24.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1.24.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 순환골재 품질인증 일원화 및 용적률 혜택으로 사용 증가 전망³⁷⁾

-  정부가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함

 -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있었음
 -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작년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통해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
-  정부는 순환골재 사용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 정부는 순환골재 사용 시 녹색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순환골재 사용비율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함
 - 용적률 완화는 순환골재 사용량에 따라 15% 이상 사용 시 5%, 20% 이상 사용 시 10%, 25% 이상 사용 시 15%까지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음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는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량 중 순환골재를 4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함
-  고품질 순환골재의 원활한 공급은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 3기 신도시 추진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건설폐기물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순환골재 활용이 중요한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작년 7월 ESG경영 실천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작년 11월에는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37) 대한전문건설신문(2026.01.16.),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634>(2026.01.24.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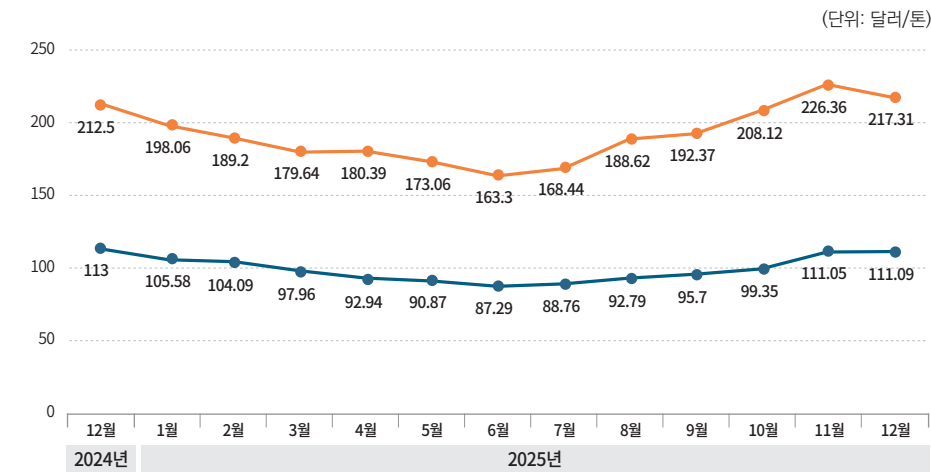


석탄 가격 추이

● 원료탄
● 점결탄

1 '25년 12월 석탄 가격, 원료탄 안정세·점결탄 하락 전환

- 원료탄(Thermal coal) 가격 증가세 및 점결탄(Coking) 가격 조정 등에 따라 용도별 가격 차별화가 지속됨
- '25년 원료탄 가격은 톤당 111.1달러로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함
 - 점결탄 가격은 톤당 217.3달러로 전월 대비 4.0%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함



구분	24년	2025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원료탄	113	105.58	104.09	97.96	92.94	90.87	87.29	88.76	92.79	95.7	99.35	111.05	111.09	0.0	-1.7
점결탄	212.5	198.06	189.2	179.64	180.39	173.06	163.3	168.44	188.62	192.37	208.12	226.36	217.31	-4.0	2.3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1.22](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1.22) 검색)

2 중국 석탄 생산량 사상 최고 기록, 화력발전량은 10년 만에 첫 감소³⁸⁾

● '25년 중국 석탄 생산량이 48억 3,00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화력발전량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함

- 중국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5년 석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8억 3,000만 톤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이는 하반기 안전 점검으로 생산이 제한되었음에도 달성한 수치로,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화력발전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함

● 이 상반된 추세는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보다 청정하고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이해관계를 보여줌

- '21년 석탄 부족으로 전국 공장에서 순환 정전이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는 에너지 기업에 광산 추가 개발과 생산량 증대를 촉구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함
- '25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급속한 증가로 전력 수요 증가분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전력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감소함
- 광산 생산량 증가와 발전소 석탄 사용 감소가 맞물리면서 석탄 재고가 증가했고, 작년 여름 현물 가격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안전 점검과 재생에너지 확대 사이에서 향후 추세는 불확실함

- 중국 정부의 안전 조사가 시작된 후 '25년 하반기 여러 달 동안 석탄 생산량이 연간 기준으로 감소했으나, 당국은 공급이 풍부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석탄 발전소가 더 많은 연료를 태우지 않고도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배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헐적 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8) Mining.com(2026.01.19.), <https://www.mining.com/web/chinas-coal-output-hits-record-in-2025-even-as-it-burns-less/>(2026.01.20. 검색)

6) 철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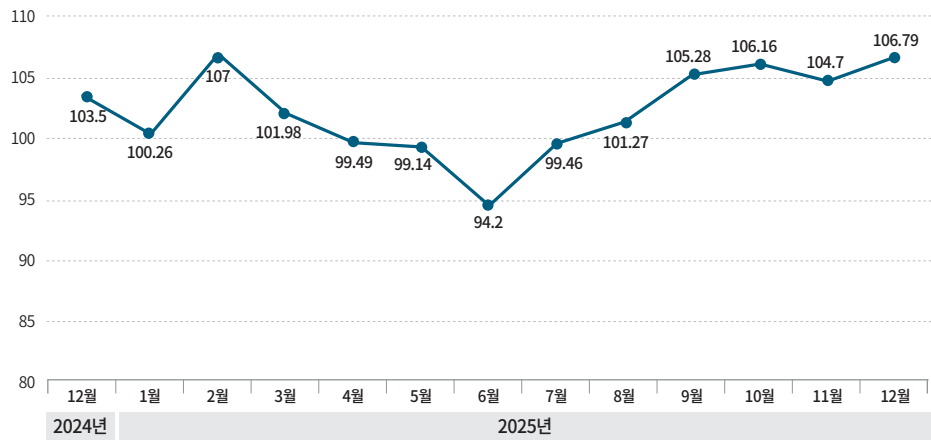


철광석 가격 추이

1 '25년 12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2.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

’25년 12월 철광석 가격(호주산 62%, 중국 CNF)은 톤당 106.79달러로 11월 소폭 하락 이후 재상승함

- 6월 \$94.2/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구분	24년	2025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03.5	100.26	107	101.98	99.49	99.14	94.2	99.46	101.27	105.28	106.16	104.7	106.79	2.0	3.2

주: 62% 분광 중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1.27. 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1.27.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중국, 알제리 철광석 개발로 호주·브라질 의존도 낮추기 본격화³⁹⁾

-  중국이 알제리 사하라 사막의 대규모 철광석 광산 개발을 통해 호주와 브라질이 주도해온 철광석 가격 결정권에 도전하고 있음

 - 중국철도건설공사(CRCC)가 알제리 남서부 틴두프주의 가라 제빌렛(Gara Djebilet) 철광석 광산과 북동쪽 산업 허브 베샤르를 연결하는 950km 철도 노선의 핵심인 'PK330 다리' 건설을 완료함
 - 섭씨 50도 고온과 움직이는 모래언덕 등 열악한 환경에서 야간 콘크리트 타설 등 정교한 공법이 동원됐으며, 1950년대 발견 이후 기술적 한계로 방치됐던 광산이 '26년 1월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함
 - 초기 연간 200만~400만 톤 생산을 시작으로 '40년까지 5,000만 톤 규모로 확장될 계획임
-  중국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철광석 조달을 확대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지리경제적 위험 관리' 전략을 추진 중임

 - 중국은 철광석 수입의 80%를 호주와 브라질에 의존해 왔으나, 기니의 시만두 프로젝트, 시에라리온의 톤콜릴리 광산에 이어 알제리까지 확보하며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있음
 - 아프리카산 물량이 호주나 브라질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시장 점유율 10~15%를 확보함으로써 기존 거대 공급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을 약화시킬 전망이다
-  알제리에서 생산된 철광석은 '26년 1분기 중 오랑 시의 토살리 철강단지에 도착해 현지 가공을 거칠 예정임

 - 알제리 철광석은 지중해 항구를 통해 수출되거나 현지에서 소비될 계획이며, 호주의 비용 효율성을 완전히 뛰어넘기는 어렵지만 중국에 중요한 '보험'이자 전략적 헤지 역할을 함
 - 알제리 가라 제빌렛 프로젝트의 성공은 중국-아프리카 관계가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고도의 자원·안보 협력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줌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9) 글로벌이코노믹(2025.12.30.),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5122917263888480c8c1c064d_1(2025.01.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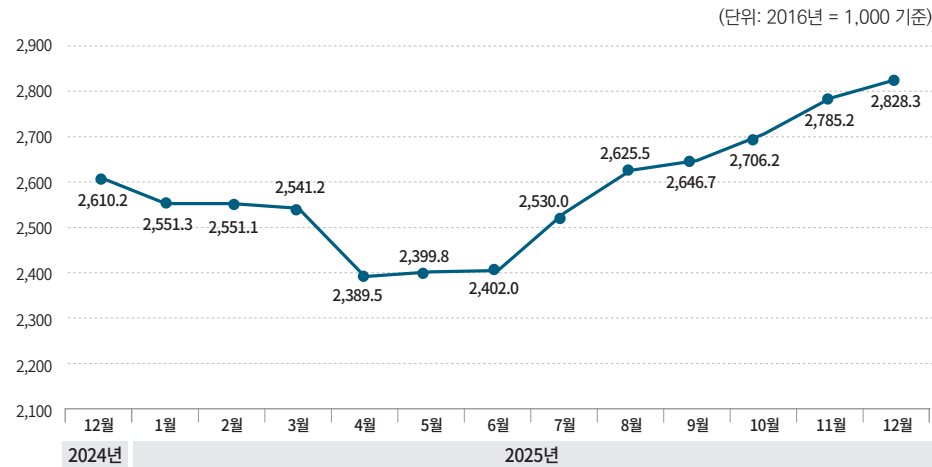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12월 광물종합지수는 2,828.3p로 6개월째 증가세

’25년 12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1.5% 증가한 2,828.3p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2,610.2p) 대비 8.4% 증가함



구분	24년	2025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 지수	2,610.2	2,551.3	2,551.1	2,541.2	2,389.5	2,399.8	2,402.0	2,530.0	2,625.5	2,646.7	2,706.2	2,785.2	2,828.3	1.5	8.4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1.22. 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1.22.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미국 주도 G7 핵심광물 회의,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다변화 방안 논의⁴⁰⁾

 미국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소집해 핵심광물, 특히 희토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함

- '26년 1월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호주·멕시코·인도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참가국의 수요를 합치면 전 세계 핵심광물 수요의 60%를 차지함
- 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이 탈동조화(디커플링)보다 신중한 위험 감소(디리스크)를 추구할 것이라며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촉구함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이 구리·리튬·코발트·흑연·희토류의 47~87%를 정제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이 부각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 미국, 핵심광물 관세 즉각 부과 보류하고 교역국과 협상 우선 추진⁴¹⁾

 미국이 희토류·리튬 등 핵심광물 수입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당장 시행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통해 공급망 안정 방안을 먼저 추진하기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은 '26년 1월 14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핵심광물 수입이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교역국과의 협상 추진을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함
- 포고문은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해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합의가 지연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미국은 232조 발동을 통해 교역국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핵심광물 생산기반 구축과 공급망 재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40) 뉴스원(2026.01.13.),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6037286\(2026.01.20. 검색\)](https://www.news1.kr/world/usa-canada/6037286(2026.01.20. 검색))

41) EBN(2026.01.16.),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5443\(2026.01.20. 검색\)](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5443(2026.01.20. 검색))

8) 목재



1

'25년 1~11월 국내 목재 수입은 주요 품목 전반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원목 수입량은 136만 1천^{m³}로 전년 동기(152만 9천^{m³}) 대비 11.0% 줄었으며, 제재목도 135만 4천^{m³}로 12.4% 감소함
- 가공도가 높은 보드류를 중심으로 수입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합판은 115만 9천^{m³}로 전년 대비 7.8% 감소했고, 파티클보드는 102만 9천^{m³}로 18.8%, 섬유판은 18만 2천^{m³}로 31.3% 줄어듦
- 성형목재 수입량은 6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함
 - 목재펠릿은 358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해, 다른 품목에 비해 감소 폭은 제한적인 수준을 보임
- 세계 목재산업은 국가별 수요와 유통 여건 차이에 따라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중국에서는 파이버보드 수입이 증가한 반면, 목재 가구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에서는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해 산림 인증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칠레는 산림 재생과 보전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함
 - 일본 도쿄항의 목재 수급은 전월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항만을 통한 유통 물량이 축소된 흐름을 보임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5년 누적 (1-11월)	2024년 누적 (1-11월)	증감률 (%)
원목(천 ^{m³})	1,361	1,529	-11.0%
제재목(천 ^{m³})	1,354	1,546	-12.4%
성형목재(톤)	68,416	72,467	-5.6%
합판(천 ^{m³})	1,159	1,257	-7.8%
파티클보드(천 ^{m³})	1,029	1,267	-18.8%
섬유판(천 ^{m³})	182	265	-31.3%
목재펠릿(천 톤)	3,582	3,609	-0.7%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5.12.27.),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14934&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1.22.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14934&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1.22.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EU, 산림벌채 방지 규정(EUDR) 적용 시점 1년 연기⁴²⁾

🌐 유럽연합(EU)은 목재와 목재제품을 포함한 산림벌채 방지 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의 적용 시점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당초 계획보다 늦은 시점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EUDR은 EU 시장에 유통되거나 EU에서 수출되는 특정 원자재가 산림 벌채 또는 산림 훼손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목재와 목재제품을 비롯해 대두, 커피, 코코아, 팜오일, 소고기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해당 규정에 따라 기업은 대상 원자재가 '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벌채 또는 훼손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 이번 연기 결정으로 규정 적용 일정은 기업 규모에 따라 구분됨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26년 12월 30일부터 규정 적용 대상이 되며, 소기업과 마이크로 기업은 '27년 6월 30일부터 적용, 당초 예정된 시행 일정에서 각각 1년씩 연기된 것임
- EU는 규정 적용 시점을 연기한 배경으로 일부 회원국의 행정·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지연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제도 대응 준비 부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규정의 내용과 정책 목표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힘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2) Reuters(2025.12.18.),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eu-countries-approve-year-long-delay-deforestation-law-2025-12-18/>(2026.01.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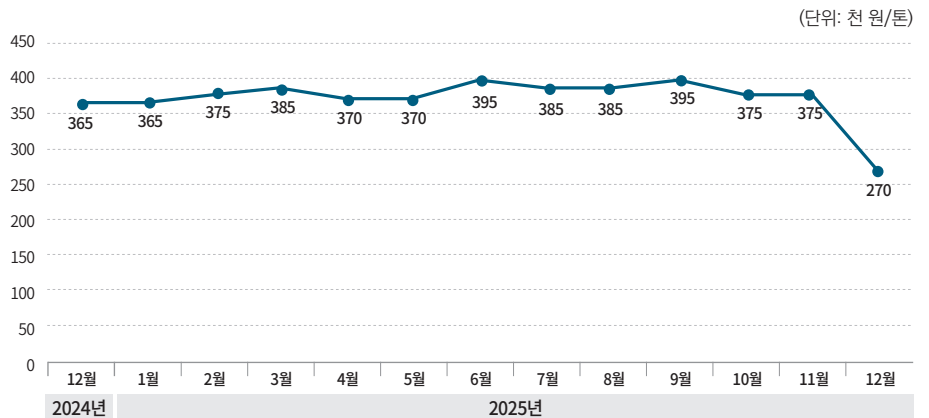
9) 고철



① '25년 12월 고철 가격, 전월 대비 큰 폭 하락⁴³⁾

- 📌 '25년 12월 국내 고철 평균가격은 톤당 27만 원으로, 전월(37만 5천 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연중 대부분 37만~39만 원대에서 유지되던 가격이 연말 들어 급락하며, 가격 흐름이 뚜렷한 조정 국면으로 전환된 모습임
- 📌 '25년 고철 가격은 1월 36만 5천 원에서 출발해 3월 38만 5천 원까지 상승한 뒤, 4~5월 조정을 거쳐 6월 39만 5천 원으로 반등
 - 이후 7~9월에는 38만 5천~39만 5천 원 수준에서 보합 흐름을 유지했으나, 10월 37만 5천 원으로 하락 전환
 - 11월까지 동일 수준을 유지한 뒤 12월 들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
- 📌 월별 흐름을 보면 상반기에는 수요 회복 기대 속에 가격 등락이 반복되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수요 둔화와 재고 부담 영향으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된 모습이 이어짐
 - 특히 12월에는 그간 누적된 조정 압력이 한꺼번에 반영되며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25년 고철 가격은 연중 반등과 조정을 반복했으나, 연말 급락의 영향으로 연간 평균 수준은 '24년 대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평가됨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12.22.),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1.22.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1.22.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3)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11.22.),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5.12.23.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5.12.23.검색))

2 EU,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제한 추진 착수⁴⁴⁾

-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해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조치를 '26년 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착수함
 - 해당 논의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임
 - 재활용 알루미늄은 원광 기반 1차 알루미늄 생산 대비 에너지 사용이 크게 낮아, EU 산업의 탄소 감축 전략에서 핵심 원료로 인식되고 있음
- EU의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은 '24년 126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약 50% 증가
 -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 지역으로 향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EU는 '25년 7월부터 스크랩 수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옴
 - 스크랩 수출 확대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관세 구조 영향도 함께 언급, 미국은 알루미늄과 스크랩에 서로 다른 관세가 적용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EU산 스크랩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남
- 한편, 재활용 업계 일부는 역내 수요와 처리 능력을 고려할 때 수출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 EU 집행위원회는 생산·재활용·수요 산업을 함께 고려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4) Reuters(2025.11.18.), <https://www.reuters.com/business/eu-plans-curb-exports-aluminium-scrap-2025-11-18/>(2026.01.22. 검색)

10) 철재



1 '25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선철은 상승 유지·슬래브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

❖ '25년 12월 선철, 슬래브, 빌렛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142.48p, 135.67p, 121.93p로 전월 대비로는 선철은 보합(0.0%), 슬래브와 빌렛은 각각 5.6%, 5.9% 하락하며 품목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임

-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연중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4월 이후 142.48p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한 수준을 유지함
- 슬래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2월 기준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 대비 4.5%로 하락함
- 빌렛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2월 기준 전월 대비 5.9%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한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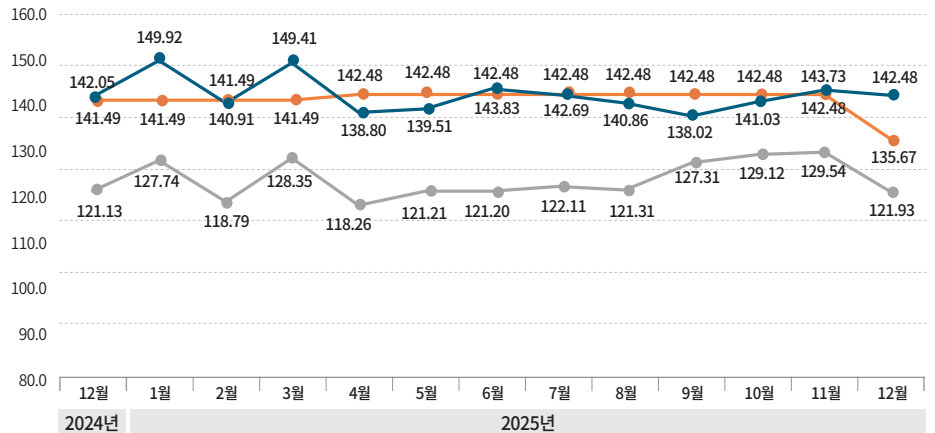
❖ 월별 추이를 보면 선철은 철광석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임

- 반면 슬래브와 빌렛은 조강 및 철강 제품 수급 여건과 시장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아 월별 등락이 반복되는 흐름을 나타냄

(2020=100 기준)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슬래브
— 선철
— 빌렛



구분	24년	2025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1.49	141.49	141.49	141.49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0.0	0.7
슬래브	142.05	149.92	140.91	149.41	138.80	139.51	143.83	142.69	140.86	138.02	141.03	143.73	135.67	-5.6	-4.5
빌렛	121.13	127.74	118.79	128.35	118.26	121.21	121.20	122.11	121.31	127.31	129.12	129.54	121.93	-5.9	0.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1.22.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중국, 조강 생산 감소에도 철강 수출 급증⁴⁵⁾

- '25년 중국의 조강(crude steel)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해 최근 7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철강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중국 정부 통계는 생산 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해외 시장으로의 출하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줌
 - 생산 감소의 배경으로는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부문 수요 부진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라 철강업체들은 내수 약세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을 늘린 것으로 이 결과 '25년 연간 철강 수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됨
- 특히 '25년 12월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관련 보도에 따르면, '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출 관련 관리·규제 조치를 앞두고 선적이 앞당겨진 점이 함께 언급됨
 - 한편, 같은 시기 중국의 철광석 수입은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강 생산 감소와는 다른 흐름이 관측, 생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수출과 원료 수입이 각각 강하게 나타난 흐름을 보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5) Reuters(2026.01.19.),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crude-steel-output-hits-se-ven-year-low-2025-despite-record-exports-2026-01-19/>
(2026.01.22. 검색)

11) 자동차



① '25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 내수 소폭 감소·수출·생산 증가세⁴⁶⁾

- 11월 내수는 전월 대비 15.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한 146,241대를 기록함**
 - 주요 지자체 보조금 소진 영향으로 국산은 전기차 중심으로 판매가 급감한 반면, 수입차는 테슬라·BYD 등 보조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요를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며 증가세를 유지함
 - 친환경차는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70,885대가 판매되어 전체 내수 판매의 48.5%를 차지함
 - 국산차는 보조금 소진 영향을 크게 받으며 전기차가 30.6% 감소했고 하이브리드도 전년 동월 호실적에 의한 기저효과로 2.6% 소폭 감소했으나, 수입차는 테슬라·BYD 등 견조한 전기차 수요가 뒷받침되며 전기차가 105.4% 증가함
- 11월 수출은 전월 대비 15.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한 236,560대를 기록함**
 - 전년도 서부권 폭설과 부품 공급 차질 기저효과와 친환경차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함
 -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39.8%) 증가 폭이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23.4% 증가한 78,417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3.1%를 차지함
 - 전기차(+0.5%)는 현대(-13.6%)와 기아(-1.8%) 부진에도 불구하고 KG모빌리티(125대 → 1,350대) 증가로 전년 수준을 유지함
- 11월 생산은 전월 대비 17.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354,204대를 기록함**
 - 전년 동월 다발성 생산 차질 요인(폭설로 인한 기아 화성공장 가동 중단, 현대기아 계열사 파업, 협력사 화재 등) 발생에 의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함
 - 현대 3.9% 증가, 기아는 16.9% 증가했으며, 한국지엠은 13.6% 감소, KG모빌리티는 3.0% 감소, 르노코리아는 52.0% 감소함

46)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12.31.),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Produce&board_id=926&menunum=0003&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1.24. 검색)

'25년 1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단위 : 대, 백만\$, %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연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11월
내수	1,626,245	147,841	1,483,423	127,134	146,241	1,535,228	15	-1.1	3.5
(국산차)	1,344,432	121,713	1,227,095	101,487	115,360	1,240,401	13.7	-5.2	1.1
(수입차)	281,813	26,128	256,328	25,647	30,881	294,827	20.4	18.2	15
OEM 수입	20,318	2,481	18,250	1,608	1,546	16,512	-3.9	-37.7	-9.5
수출	2,782,612	224,645	2,530,792	202,928	236,560	2,491,337	16.6	5.3	-1.6
(완성차 수출액)	70,786	5,640	64,740	5,545	6,410	66,038	15.6	13.7	2
(부품 수출액)	22,533	1,765	20,663	1,519	1,569	19,372	3.3	-11.1	-6.2
생산	4,128,242	344,358	3,754,881	302,819	354,204	3,739,636	17	2.9	-0.4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12.31.),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Produce&board_id=926&menunum=0003&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1.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 '25년 자동차 수출액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⁴⁷⁾

-  '25년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총 720억 달러로 기존 최대 실적인 '23년 709억 달러를 넘어 서며 역대 자동차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3년 연속 700억 달러를 돌파함
 -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 달러로 '24년보다 11%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 수출액(148억 달러, '24년 대비 +30.0%)을 달성함
 - 중고차 수출액도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고환율 등으로 역대 최고치(88.7억 달러, '24년 대비 +75.1%)를 경신함
-  '25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대로 3년 연속 400만대를 돌파했으며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크게 증가함
 - '25년 내수 판매량은 168만대('24년 대비 +3.3%)로 국산차는 136만대(비중 81%), 수입차는 32만대(비중 19%)를 차지함
 - 친환경차가 '24년(65만 대) 대비 25% 증가한 81.3만 대를 기록하며 신규 판매 차량의 48%를 차지했으며, 그중 전기차는 21.6만대로 2024년(14.2만 대) 대비 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산업부는 '26년에도 K-모빌리티 선도전략을 착실히 이행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 확충과 수출동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 '25년은 미국 관세 부과로 자동차산업에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과 미국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추진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 720억 달러를 달성함
 - '26년 자동차산업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현지 생산 확대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산업부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충과 수출동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7)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01.15.),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439/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6.01.24. 검색\)](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439/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6.01.24. 검색))

1 미국 제조업 PMI 47.9 기록, 위축 국면 지속⁴⁸⁾

’25년 12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9로 전월(48.2) 대비 하락하며 기준선(50) 하회를 지속함

- 미국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이는 ’24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미국 제조업 활동의 위축 속도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에서는 생산과 재고 부문의 조정이 위축 심화를 주도함

- 생산지수는 51.0으로 전월(51.4) 대비 하락하며 확장 국면에서 둔화됨
- 재고지수는 45.2로 전월(48.9) 대비 큰 폭 하락해 재고 축소 압력이 재차 확대됨
- 가격지수는 58.5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원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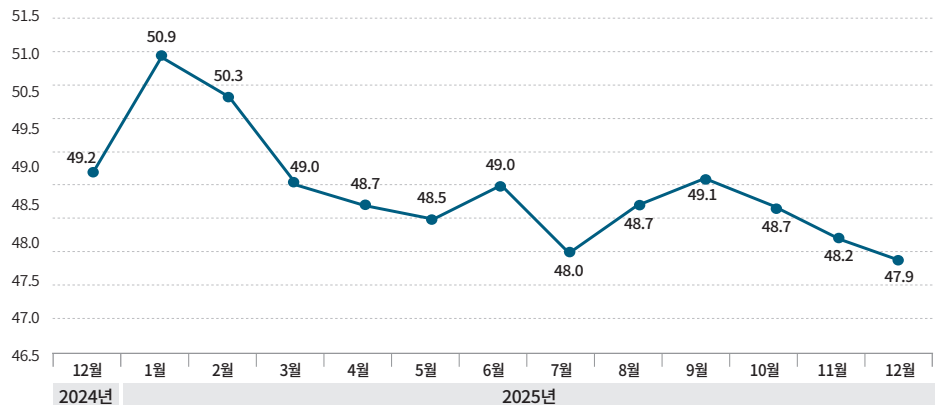
일부 선행 지표에서는 제한적인 개선 신호도 나타남

- 신규주문지수는 47.7로 전월(47.4) 대비 소폭 상승함
- 수주잔량지수는 45.8로 전월(44.0) 대비 개선되었으며, 신규수출주문지수도 46.8로 상승함
- 고객 재고지수는 43.3으로 ‘부족’ 구간을 유지해 향후 주문 회복 가능성을 시사함

다만 고용 부문은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무름

- 고용지수는 44.9로 전월(44.0)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기준선을 크게 하회함
- ISM은 단기 반등 신호는 있으나, 제조업의 중장기 회복 여부는 신규주문과 고용 지표의 연속적인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평가함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6.01.05.), KMI 작성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8) Trading Economics(2026.01.05.),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6.01.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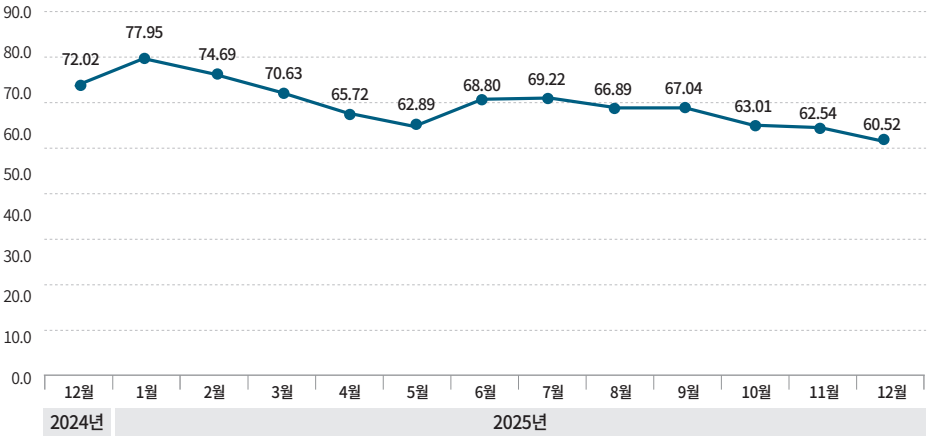
12) 잡화



1 '25년 12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3대 유종 모두 하락세 지속

- 12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3.2% 하락한 60.52달러를 기록함
 - '25년 국제유가는 1월 고점을 형성한 이후 2~5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졌고, 6~9월에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계절적 수요로 일시 반등하였으나, 10월 이후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2월 최저 수준을 기록함
 - 글로벌 원유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면서 하방 압력이 확대되었으며, 중국 등 주요 소비국 경기 회복 기대가 제한적인 가운데,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나타남

(단위: 달러/배럴)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4년	2025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3.23	80.41	77.92	72.49	67.74	63.73	69.26	70.87	69.39	70.01	65.00	64.47	62.05	-3.8	-15.3
Brent	73.13	78.35	74.95	71.47	66.46	64.01	69.80	69.55	67.26	67.58	63.95	63.66	61.63	-3.2	-15.7
WTI	69.70	75.10	71.21	67.94	62.96	60.94	67.33	67.24	64.02	63.53	60.07	59.48	57.87	-2.7	-17.0
평균	72.02	77.95	74.69	70.63	65.72	62.89	68.80	69.22	66.89	67.04	63.01	62.54	60.52	-3.2	-16.0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1.23.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1.23. 검색))

13) 유류



2 남중국해 분쟁 해역 인근 신규 천연가스 매장지 발견⁴⁹⁾

-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 해역 인근 베타적경제수역(EEZ)에서 대규모 신규 천연가스 매장지를 발견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와 전력 위기 대응에 나섬

 - 신규 가스전은 기존 말람파야 가스전 주 매장지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돼 말람파야 이스트 1(Malampaya East 1)로 명명되었으며, 기존 가스전 생산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해저 저류층에는 약 27억㎥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초기 시험 결과 하루 약 160만㎥의 생산 잠재력이 확인됨
 - 해당 매장지는 연간 약 570만 가구 또는 약 20만 개 학교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됨
 - 필리핀 정부는 추가 시험과 시추를 통해 가스 자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천연가스와 함께 고부가가치 액체 연료인 콘덴세이트도 발견됐다고 설명함
 - 전문가들은 말람파야 가스전의 고갈 가능성으로 루손 지역 전력 위기 우려가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견의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함
-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개발·운영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됨

 - 해당 해상 가스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이 자원 개발 권리를 보유한 200해리(약 370km) EEZ 내에 위치함
 - 필리핀은 팔라완 서쪽 리드 बैं크(Reed Bank)에서도 석유·가스 탐사를 추진해 왔으나,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대로 수년간 실질적인 진전이 제한됨
 - 중국은 베트남의 해상 석유·가스 탐사에도 반대해 왔으며,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해경·해군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으로 지역 내 에너지 개발과 안보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49) AP(2026.01.19.), <https://apnews.com/article/philippines-malampaya-gas-field-palawan-china-sea-c748d1b5ae9766ebfe2aae8fad0df02c>(2026.01.23. 검색)

3 중동 정세 불안 속 국내 원유 수급 영향 제한적⁵⁰⁾

이란·베네수엘라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원유 수급과 석유제품 가격에는 당장은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정부가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04년 이후, 이란산 원유를 '20년 이후 각각 전면 수입 중단해 두 국가로부터 원유 수입이 거의 제로 수준임
- 현재 국내 원유 수급은 사우디아라비아·UAE·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과 미국·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분산 의존하고 있어, 이란·베네수엘라 사태가 수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업계는 평가함
-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지정학적 긴장 영향으로 일시적 변동성을 보였으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안정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했으나 생산 점유율이 1% 수준으로 글로벌 수급·가격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이란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서 잠재적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가 제기됨
- 가장 큰 리스크 변수로 언급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5%, LNG의 33%가 통과하는 해상로로, 실제로 봉쇄될 경우 단기 유가 급등 가능성(100~150달러 선 전망)도 거론되고 있음
-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와 정부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정유 4사·한국석유공사·대한석유협회 등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리스크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석유협회 관계자는 향후 상황이 이란과 미국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50) 연합뉴스(2026.01.18.),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4002>(2026.01.23.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① '25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감소, 에틸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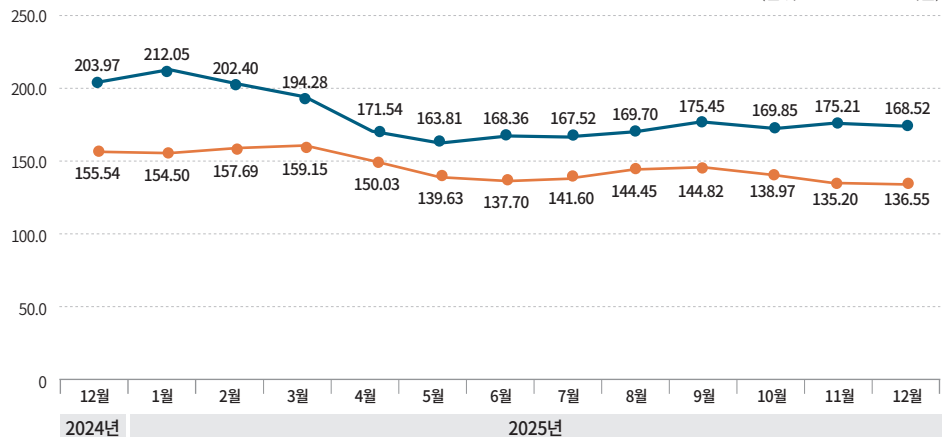
12월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3.8% 감소한 168.52p, 1.0% 하락한 136.55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제품 중 하나인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상반기 동안 국제 유가 하락과 석유화학 수요 둔화 영향으로 빠르게 하락했으며, 6~9월에는 일시 반등했으나 12월 기준 연중 초 대비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함
-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원유계 기초유분 전반의 가격 부담이 완화되고 중국·아시아 지역 석유화학 설비 가동률 조정으로 나프타 수요가 둔화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상반기 150대 초중반에서 하락해 5~6월 저점을 형성한 뒤, 하반기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는 못함
- 글로벌 에틸렌 설비 증설에 따른 구조적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가격 회복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단위: 2020 = 100 기준)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4년	2025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03.97	212.05	202.40	194.28	171.54	163.81	168.36	167.52	169.70	175.45	169.85	175.21	168.52	-3.8	-17.4
에틸렌	155.54	154.50	157.69	159.15	150.03	139.63	137.70	141.60	144.45	144.82	138.97	135.20	136.55	1.0	-12.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1.23.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국내 에너지기업 해외 암모니아 생산 공장 건설 박차

GS에너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연간 1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블루 암모니아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설비 설치를 완료함⁵¹⁾

- 공장은 아부다비의 알 루웨이스 소재 저탄소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로, 이탈리아 테크니몬트(Tecnimont S.p.A)가 암모니아 컨버터 설치 작업을 마쳤으며 '27년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임
- 이번 프로젝트는 GS에너지가 네덜란드 OCI·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애드녹), 일본 미쓰이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생산된 암모니아는 청정 연료 또는 추가 처리해 수소 공급에 활용될 예정임
- 블루 암모니아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을 통해 탄소집약도를 낮춘 청정 암모니아로, 향후 글로벌 탄소중립 연료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DL이앤씨는 캐나다에서 블루 암모니아 처리·비료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해 기술·설계 역할을 맡으며 해외 플랜트 사업 확대를 추진함⁵²⁾

- 이 공장은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벨 플레인 지역에 하루 1,500톤 규모 블루 암모니아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29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DL이앤씨는 현지 비료 업체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와 설계·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자회사 카본코가 CCUS 기술을 공급하는 등 국내 기술력을 수출하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완공 후에는 연간 105만 톤 규모의 친환경 비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조달 계획도 해외 수출신용기관 참여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51) The Guru(2025.12.23.),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6009\(2026.01.23. 검색\)](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6009(2026.01.23. 검색))

52) 매일경제(2026.02.06.), [https://www.mk.co.kr/news/realstate/11924810\(2026.01.23. 검색\)](https://www.mk.co.kr/news/realstate/11924810(2026.01.23. 검색))

3 글로벌 수소 시장, 공급 확대에도 수요·상용화 한계 지속 전망⁵³⁾

-  지난해 글로벌 수소 시장은 생산 설비와 정책 발표가 확대됐으나 수요 부족과 가격 경쟁력 한계로 상용화와 투자 확산이 제한된 상태를 보임

 - '24년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은 약 1억 톤에 달했으나 대부분 화학·정유 공정에서 생산되며 저탄소 수소 비중은 1% 미만에 그침
 - 각국이 청정수소 전략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테이크(off-take, 장기 공급계약) 부족과 높은 생산비로 다수 사업의 최종투자결정(FID)이 지연됨
 - Platts 집계 기준 글로벌 저탄소 수소 프로젝트 중 약 20%가 취소 또는 연기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
 - 정책 지원은 생산 부문에 집중된 반면 수요 창출, 저장·운송 인프라, 인증 체계 구축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됨
-  향후 글로벌 수소 시장은 정책 지속 여부와 수요 기반 형성,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속도에 따라 점진적 성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산업·발전·운송 부문에서 수소 활용 가능성은 존재하나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과 기술 성숙도 한계로 수요 확대 속도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EU는 보조금·인센티브 기반 청정수소 전략을 지속하며 전해조, 저장, 항만 연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중국은 수전해 설비 대형화와 내수 중심 시장 육성에 집중하며 글로벌 수소 공급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함
 - 따라서 수소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은 국제 거래, 장기 공급 계약, 항만 기반 저장·환적 체계 구축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53) 에너지신문(2026.01.06.),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56>(2026.01.23.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박세리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1월 31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